

하늘로바다로 사천으로  
Sacheon



# 사천N

SACHEON MAGAZINE

2022. 1월 (통권309호)



새벽을 여는 사람들



# 활어 공판장에서

혜원 박영배

잘난 것. 못난 것.  
이티 님은 것  
정치 좋아하다 정치망에 걸린 것  
남의 집 들어갔다 사로잡힌 것  
물에서 놀았다는 것들이  
펼쩍 뛰는 공판장

사람 반. 고기 반  
낮두꺼운 갈매기까지  
사이렌이 울리고  
화성인들 말이 쏟아지고

새벽 그물 걷어온 사람.  
어둠 열고 달려온 물차  
시간 다투는 현장에서  
손수레 활어차가 불나고  
물이 넘치고 채워지고

산소가 공급되고  
성질 급한 것 얼음 채워  
손살같이 실려 가는  
여긴 응급실이다, 오바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는 곳  
비릿한 말소리 씻겨가면  
일당으로 비늘을 터는 사람들  
국밥집은 온기가 돌고  
손에는 막걸리가 돌고

물 때 좋은 날  
갈매기도 잔칫날이어  
손놀림 바쁜 영철이 할매  
고무대야에서 연신 탈출하는  
장어 몇 마리



**혜원 박영배**  
· 사천시 문인협회장 역임  
· 박재삼 문학 선양회장 역임  
· 한국 문인협회 회원  
· 사천시 문화재단 이사 역임

## 사천시와 친구해요!

sns에서 사천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사천시청' 검색 >  
채널추가



**네이버 블로그**  
'사천시청' 검색 >  
블로그 이웃추가



**유튜브**  
'사천TV' 검색 >  
구독 클릭



**페이스북**  
'사천시청' 검색 >  
좋아요



**카카오스토리**  
'사천시청' 검색 >  
소식받기



**인스타그램**  
'사천시' 검색 >  
팔로우





# CONTENTS

## VISION

04

- 04 특집 - 2박 3일 여행
- 07 시정소식 - 읍면동 소식
- 08 의회소식 - 의정활동

## STORY

10

- 10 사람&단체 - 부울경푸드트럭 이민정  
- 곤양시장
- 16 마시뜨라 - 옛날 스타일 돈까스
- 18 사천의 자랑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 20 동네한바퀴 - 상아농장
- 22 기획 - 미룡마을의 전설  
- 사천바다케이블카 홍보요정 박희산
- 26 연재코너 - 걷기 좋은 사천의 길 - 토끼와 거북길  
- 어때요? 항공산업 39탄  
- 길이름따라 떠나는 사천이야기: 배춘길  
- 사천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호연정기

## WITH

32

- 32 문화생활정보 - 시정문화예술 알림
- 34 건강 - 건강검진의 중요성
- 35 독자마당 - 겨울추억
- 36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 사천에서 추천드리는 2박 3일 여행 1일차 코스! 사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사천에서의  
2박 3일은 어떠세요?  
**여행 1일차 코스**를  
추천해드려요♡



### 남일대해수욕장

☞ 경상남도 사천시 모래2길 11-19

에메랄드빛 맑은 바닷물 남일대 해수욕장!  
밤하늘과 어우러진 야경도 아름다운 남일대해수욕장입니다.

### 노산공원

☞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110-16

언덕 위에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눈앞에 펼쳐진 바다 풍경!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힐링하기 좋은 노산공원입니다

### 용궁수산물시장

☞ 경상남도 사천시 아사강길 64 삼천포 용궁수산물시장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보고 즐기면서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회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사천바다케이블카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대로 18

산-바다-섬을 잇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안카페거리

☞ 사천시 문의 055-835-1023(해항관광 센터)

푸른바다와 오일조일한 해안선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일품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과 함께 실안노을을 즐겨보세요.

사천에서 추천드리는 일정별 코스를 따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천여행 2박 3일 여행 2일차 코스 추천을 따라 즐길 거리 가득한 **사천시**를 제대로 즐겨보세요!

사천에서의 2박 3일은 어떠세요?  
**여행 2일차 코스**를 추천해드려요♡



### 백천사

◻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26-2

세계 최대 약사왕불이 있는 곳! 크기와 화려함도 불만하지만  
발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고 그 안에 삼존불 법당이 자리져 있습니다.

### 무지갯빛 해안도로

◻ 사천시 문의 055-835-1023(체험관광 센터)

해안의 절경과 무지갯빛 방자석이 펼쳐진 무지갯빛해안도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색다른 인생샷을 선물해 주는 곳입니다.

### 선진리성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770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지은 성으로 이순신 장군에 의해 격파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가 깃든 선진리성에서 옛 선조들의 애국심을 기려보세요.

### 항공우주박물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한국항공

항공우주과학의 생각이 자라는 항공우주로의 여행!  
아외전시장과 항공우주관, 자유수호관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사천첨단항공 우주과학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08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원 입체 영상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상상력, 지식을 쌓기에 더 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 비토국민여가캠핑장

◻ 경상남도 천시 서포면 용궁로 132

별주부전의 설화를 간직한 비토국민여가 캠핑은 비토성에 위치하여  
푸른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자연을 만끽하기 딱 좋은 캠핑장입니다.

사천에서 추천드리는 일정별 코스를 따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팔포음식특화지구**가 **밤에도 반짝반짝 예뻐졌어요**

사천에서의  
 2박 3일은 어떠세요?  
**여행 3일차 코스**  
 추천해드려요♡



### 비토섬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섬 모양이 토끼를 닮기도 했지만 토끼의 갠을 찾으러 간 거북 이야기인 별주부전의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 월등도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바다가 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바닷길, 이순신바닷길 제3코스인 '토끼와 거북이길'이기도 합니다.

### 요라파목장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고등리로 289  
 치즈와 피자 만들기, 목장체험, 리파유정 족욕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이곳은 요라파목장입니다.

### 다솔사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다솔사길 417  
 천년의 고찰 봉명산 다솔사는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치로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 와인갤러리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경서대로 3552  
 50여 년 전의 기차 터널을 다래와인 저장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와인갤러리입니다.

사천에서 추천드리는 일정별 코스를 따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SACHEON NEWS

## 읍면동 소식

### 2021년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개최



사천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6일 '2021년 사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최갑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천시협의회장, 박해숙 대한적십자사사천지구협의회장, 이정묵 사천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장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 평등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회장 최갑현, 이하 민주평통)가 12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 제7회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정보화제전 성황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제7회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정보화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MG새마을금고 삼천포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참여자들 간의 최소 접촉, 대회 종료 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9일 문서작성 분야, 10일 E-스포츠(카트라이더)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나눔텃밭' 수확작물 '김장 행사'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2021 사랑의 김장행사'를 펼쳤다. 이번에 수확한 무는 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것으로, 행사 기간 자원봉사단체인 천사회 회원 21명과 복지관 직원이 함께 무를 수확하고 김치를 담근 뒤 지역의 어려운 이웃 50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 사천시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인의 밤 행사 개최



사천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영련)가 12월 9일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객순표 사천시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식, 축하공연 및 경품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99명의 읍면동 위원들이 참석했다.

### 자연보호헌장 기념식 사천시 자연보호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사천시가 12월 3일 용현면 주문리에 소재한 거북선 마을에서 제43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및 사천시 자연보호 화합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연보호 유공시민 및 공무원 표창, 곤양면 맥사리 이순신 백의장군로 일대 자연정화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SACHEON NEWS

## 의회 소식

## 본 회의



## 임시회 총괄

사천시의회(의장 이삼수)는 지난 12월 21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3일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천시의회 제개정 차지법규 22건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했다. 또한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주요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삼수 의장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추운 겨울철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시민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 ● 의결내용 / 활동사항

-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2건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4건)



# SACHEON NEWS

## 의회 소식

### 행정관광위원회



● **의결내용 / 활동사항**

-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원안가결 6건/ 보고의 건 1건)

● **5분 자유발언**

<p><b>구정화 의원</b> (국민의힘/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p>	<p>'스마트 시티' 조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 촉구</p>
<p><b>김행원 의원</b>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p>	<p>취약 청소년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 및 지원 확대 촉구</p>
<p><b>김영애 의원</b> (무소속/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p>	<p>'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존' 설치 촉구</p>

### 건설항공위원회



● **의결내용 / 활동사항**

-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원안가결 5건/ 반대의견채택 1건)

● **5분 자유발언**

<p><b>최인생 의원</b> (국민의힘/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p>	<p>사천 GNU 사이언스 파크 내 항공 우주 관련 4년제 대학 유치 촉구</p>
---	---

## 기타 의정활동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의회 준비사항 설명회**

- 일시: 2021. 11. 30.(화) 15:00
- 장소: 시의회 2층(소회의실) - 대상: 시의원 12명, 직원 8명
- 내용: 관련법령 개정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사무국 자치법규 정비



● **사천시의회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 실시**

- 일자 : 2021. 11. 25.(목) 09:30
- 대상 : 남양중학교 학생 112명
- 내용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정 체험, 의회시설 견학



# ≡ 해가 뜨면 달려야 한다 ≡ 부경 푸드트럭협동조합

해가 뜨면 가젤은 달린다. 가장 빠른 사자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  
 해가 뜨면 사자도 달려야 한다. 가장 느린 가젤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  
 해가 뜨면 부경 푸드트럭도 달린다.  
 가장 빠른 사자보다 빨리, 가장 느린 가젤보다 빨리.  
 이민정 부경 푸드트럭협동조합 이사는 오늘도 푸드트럭을 타고 달린다.





### 작은 마음들이 모여 만든 푸드트럭협동조합

“네 번 성공하고 한 번 망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이민정 이사가 말했다. 그 한 번의 망한 경험이 주는 좌절은 생각보다 컸다. 그는 좌절의 쓴 약을 삼키며 하루하루 고민했다. 왜 망했을까? 고민 끝에 다다른 그의 결론은 ‘내가 제일 잘하는 일로 돌아가자’였다. 그런데 다시 돌아간 요식업의 생태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작 2~3년 사이에 식당도 블로그나 SNS로 홍보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는 그런 것을 할 줄 몰랐다. 그냥 우직하게 혼자서 홀서빙하고 청소하고 테이블 정리하고 요리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썩쓸하게 바닷가를 찾은 어느 날 그는 거기서 푸드트럭을 보았다. 푸드트럭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영화 ‘아메리카 셰프’처럼 푸드트럭을 몰고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다. 벽참을 누르고 푸드트럭의 현실을 검색해 보았다. 그가 검색한 푸드트럭의 현실은 영화 같지 않았다. 일단 푸드트럭은 아무 장소에서나 할 수 없었다. 또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축제나 행사 정보를 찾아내야 했다. 그는 그런 정보에 어두웠다. 잘못하다간 길에서 쫓겨 다니다가 길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꿈이 있는 곳에 길도 있는 법. 혼자가 두려우면 함께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 부경 푸드트럭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함께하니가 좋았다. 힘든 건 서로 돕고 좋은 건 서로 나누고.

###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

푸드트럭 장사도 잘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될 때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부경 푸드트럭은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만족도 높은 한 끼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것은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부경 푸드트럭협동조합 회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시각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은 푸드트럭을 타고 와서 돈만 벌고 사라져버리는 낯선 녀석들, 뜨내기가 아닐까. 이 생각은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지역과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사천 에어쇼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했는데 운 좋게 장사가 무척 잘 되었다. 부경 푸드트럭협동조합 회원들은 조금씩 돈을 거둬 사천 에어쇼 담당국장을 찾아가다. 사천 에어쇼 담당국장은 사천시 장학재단에 기부를 권유했다.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새로운 인연이 자꾸 찾아왔다. 선구동 허혜연 동장님을 알게 되었고, 허혜연 동장님은 선구동 어르신들을 모실 기회를 주었다. 부경 푸드트럭협동조합 회원들은 식자재를 준비해 푸드트럭을 타고 가서 식사와 간식을 만들어드렸다.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니까 기쁨으로 가슴이 뭉클했다고 이민정 이사는 말했다.

“김장 봉사나 무료급식 봉사와 또 달라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마음은 대접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가을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선구동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선구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해보니까 봉사라는 게 별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이더라고요. 코로나가 풀리면 장사가 잘되겠죠? 그러면 기부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베푸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사이다처럼 가슴에서 터져요.”

### 푸드트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소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푸드트럭이다. 하지만 꿈과 계획만 가지고 무턱대고 시작했다간 길거리에서 좌절하기가 쉽다. 부경 푸드트럭협동조합에 와서 장단점을 들어보고 실습 기회라 생각하며 같이 다녀보면서, 장사가 잘되는 것도 보고 장사가 잘 안되는 것도 보아야 한다고 이민정 이사는 조언했다. 장사가 잘되는 것을 보면 선명한 꿈을 그릴 수 있고 장사가 잘 안되는 것을 보면 안 되는 이유를 따져보며 배울 수 있다. 그런 뒤 정말 푸드트럭이 하고 싶다면 틈새 메뉴를 개발해서 실제 영업을 해보며 손님들의 반응도 살펴야 한다. 한번 꿈이 좌절되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일어서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한 번 망해보고 좌절을 겪은 이민정 이사가 당부했다.

“푸드트럭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꼭 연락 바랍니다.”

부경 푸드트럭협동조합에서는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실습용 푸드트럭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푸드트럭의 꿈을 키워주는 공유주방이 있었으면**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금이 넉넉지 않다. 그래서 식자재를 집에서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하





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2~3층에서 식자재를 푸드트럭으로 운반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푸드트럭 사업자를 위한 공유주방과 공유창고를 제공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겨울은 푸드트럭의 보릿고개다. 행사도 거의 없고 일도 거의 없다. 푸드트럭을 끌고 일을 나가도 추위에 떠는 사람들은 제 갈 길 가기에 바쁘다. 이런 계절에는 개인적으로 식자재 창고를 대여해 쓰는 푸드트럭 사업자는 식자재 창고의 임대료조차 내기 벅차다.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도와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주방에서는 마음 놓고 레시피를 연구할 수 있다. 공유창고에는 운반 걱정 없이 넉넉하게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공유주방과 공유창고는 창업의 꿈을 키워주는 단비와도 같다.

해가 뜨면 가젤은 달린다.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달린다. 해가 뜨면 사자도 달린다. 배고파서 죽지 않기 위해 달린다. 해가 뜨면 이민정 이사도 달리고 부경 푸드트럭협동조합도 달린다. 그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으로 달린다. 오늘도 좋은 식자재로 좋은 음식을 많이 팔아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 한우프라자 개업 후 옛 명성 찾는 듯 했지만...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에 있는 곤양시장은 5일장이다. 곤양·곤명·서포 등 서부 3개면에서는 규모가 가장 클 정도로 성세를 누렸던 전통시장이다. 한 때는 사천 경제의 중심이자 인근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으로 그 명성을 날렸다.

곤양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지닌 뿌리 깊은 시장이다. 1922년 5월1일 목조 함석으로 162평 건물에 6평짜리 점포 27동을 건립한 것이 시초였다.

당시 곤양은 옛 사천군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이었다. 진주는 물론 인근 곤명과 서포 등지에서 사람과 물건들이 모여드는 경제의 중심이기도 했다. 자연스레 곤양시장은 활성화됐고, 지역경제도 흥청거렸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곤양시장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농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화려했던 옛 명성은 퇴색되기 시작했다. 인근지역에서 몰려오던 상인들은 줄어들고, 자연스레 시장을 찾는 이들 또한 급격히 감소했다.

위기감을 느낀 곤양시장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곤양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옛 영광을 재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 생각이었다. 그 때가 1997년 4월, 곤양공설시장은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낡은 점포들을 뜯어내고 현대

식 건물을 건립해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현대화사업은 대지 1564평에 건축면적 1982평, 매장면적 1474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해 83개의 점포를 갖춘 현대식 시장으로 탈바꿈 했다. 현대화 이후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띠었다. 점포에 입주한 상가들도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거기까지이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그로 인한 인구감소, 여기에 주변 대형마트와 식자재 판매 업소들이 들어서면서 시장은 급격히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여기에 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좋아지면서 인근 진주와 사천 등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더욱 위축됐다.

그나마 위안이 된 건 2014년 1월 곤양시장 2층에 '사천한우프라자'가 들어선 것이었다. 사천시는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7500만 원 등 모두 3







억8000만 원으로 주차시설이 용이한 곤양시장 내 2층 일부를 리모델링한 뒤 손님이 한우판매장에서 고기를 사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530㎡)과 식육판매점(140㎡)을 조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곤양시장에 조성한 사천한우프라자는 질 좋은 한우만을 판매하는 한우 먹거리장터이다. 사천시에서 공모한 ‘곤양종합시장 특성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천한우영농조합이 운영하는데, 지역 내 한우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놀이 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특히 고품질의 믿을 수 있는 한우만을 선별해 현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유혹했다.

한우프라자가 본격 영업에 들어가자 곤양시장이 북

적이기 시작했다. 질 좋은 한우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근 지역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관광버스를 타고 찾아 왔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자연스레 시장 구경에 나섰다. 상인들이 판매하는 각종 농수산물들을 구매해 가면서 활기를 띠기도 했다. 대형 유통매장의 증가로 파탄의 위기에 놓인 사천 곤양시장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건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활기를 잃었다. 인근에 대형 유통매장의 증가는 물론 상권매력도·시설·경영·마케팅 등 경쟁력 요소가 매우 약한 E등급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상 예산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침체일로를 걸었다.

현재 곤양시장은 83개 점포 중 22개만이 문을 열고 정상영업을 할 만큼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강봉수 시장변영회장은 “100년의 역사를 지닌 곤양시장이 과거의 영광을 잃고 쇠퇴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곤양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마련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시장변영회장 강봉수



# 사천시 **경양식** **돈가스** 맛집♡

오늘은 뭐 먹지? 새해에도 메뉴 고민 중이세요?

2022년에는 맛있는 옛날 돈가스로 시작해 봅시다~

사천시에는 돈가스 맛집들이 많답니다.

그중에서 옛날 경양식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맛도 보장된 곳이니 가 보실까요?

## 호수 레스토랑

1968년부터 지금까지 쭉~욱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10대부터 있었으니 어느새 30년이 넘었어요.  
사천시에서 제일 오래된 곳입니다.

맛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참 신기해요.  
저는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야채스프가 좋아요.  
사장님께서도 지금까지도 샐러드용 야채와 소스를  
직접 장만하신다고 합니다.

얇살하게 튀겨낸 돈가스도 바삭하니 씹히는 식감도  
좋아요. 함께 나오는 남도 특유의 젓갈맛이 강한  
부추김치가 느끼함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테이블 보와 그릇마저도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  
진정한 고수의 맛을 원하시면 고고생하세요~

호수레스토랑은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합니다

전화예약 전혀 안되시구요. 오픈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휴무일은 없습니다.



## 샤인

들어서는 순간 '응답하라~ 1988'이 떠오르실 거예요.

테이블도 의자들도 클래식한 것이

90년대 경양식 레스토랑 느낌이 물씬~납니다.

애피타이저로 나오는 마늘 바게트와 스프♡

마늘바게트가 은근 맛있어요. 스프와 드셔보세요~

본 메뉴 돈가스는 바로 튀겨서 달콤한 소스가  
듬뿍 뿌려져 나오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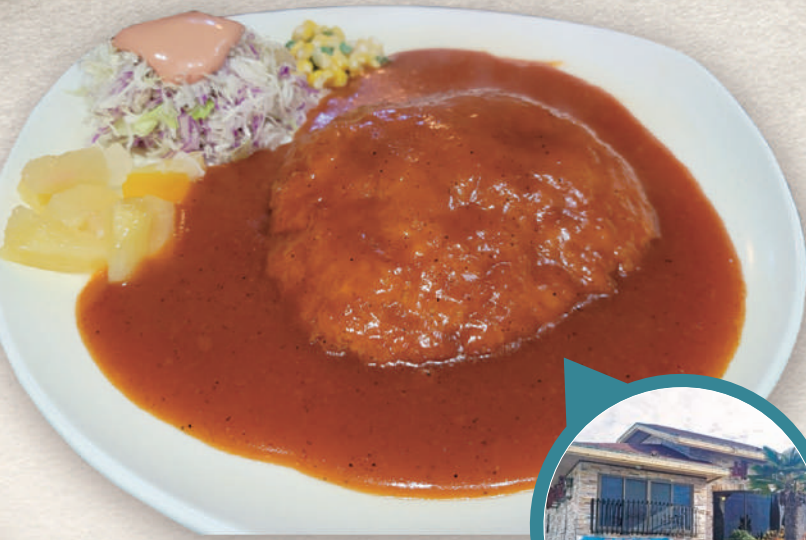
도톰한 튀김옷 속에 국내산 고기가 들어 있어  
요. 쫄깃쫄깃~ 바삭바삭~ 맛있어요.

디저트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은 12시 20분부터 오픈하고 팔포음식특  
화지구에 있습니다.







## 해오름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곳입니다.  
 입구부터 7080느낌이 물씬~~해요  
 사장님께서 종이로 접으신 거북이들과 다육이화분들이  
 가득하고 2층 계단도 레트로 느낌 제대로예요.  
 언니들, 오빠들이 좋아하실만한 7080♡  
 그 시절 노래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음악 좋아하는 저도 좀 당황했어요.  
 스프와 빵♡ 요게 찐 옛날 스타일이죠  
 스프에 푹~ 찍어서 드셔보세요.  
 돈가스도 큼직하고 소스를 아낌없이 뿌려주십니다.  
 양배추 샐러드랑 옥수수가 정감 있어요.  
 밥도 많이 주시고 곁들여 나오는 반찬들도 푸짐합니다.  
 시원한 백김치랑 무김치가 돈가스랑 잘 어울립니다.  
 집에서 먹는 느낌이 드는 편안한 곳입니다.

## 일마레

실안해안도로를 달리다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오션뷰가 멋진 곳이에요. 테라스 뷰도 예쁘지만 저는  
 저 문이 해가 갈수록 빈티지스러워져서 맘에 들어요.  
 널찍한 공간이지만 공간구분도 잘 한 거 같아요.  
 여긴 팝송이 흐릅니다. 이곳 인기 메뉴는 돈가스세트예요.  
 애플타이저로 나오는 토마토절임, 샐러드, 스프가 일단  
 알록달록해서 눈에 띄니다.  
 토마토절임은 한입에 쏘옥~ 상큼하면서  
 달콤하면서 신맛도 나는 게 입맛을 돋웁니다.  
 샐러드도 깔끔하고 푸짐합니다.  
 무엇보다 돈가스 플레이팅이 좋아요.  
 촉촉하고 달콤한 부드러운 소스가 식어도 맛있어요.  
 소스에 야채들이 가득해요. 건강한 맛, 느껴지시죠?  
 바다 보며 먹는 돈가스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식후 커피 한 잔도 좋고 센스있는 사탕도 굿!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돈가스♡ 요즘 이런 돈가스 찾기 힘드시죠?  
 촉촉한 돈가스가 그리운 날에는 사천시로 오세요.  
 추억의 맛은 덤으로 드려요.

송미선

제6기 사천시 SNS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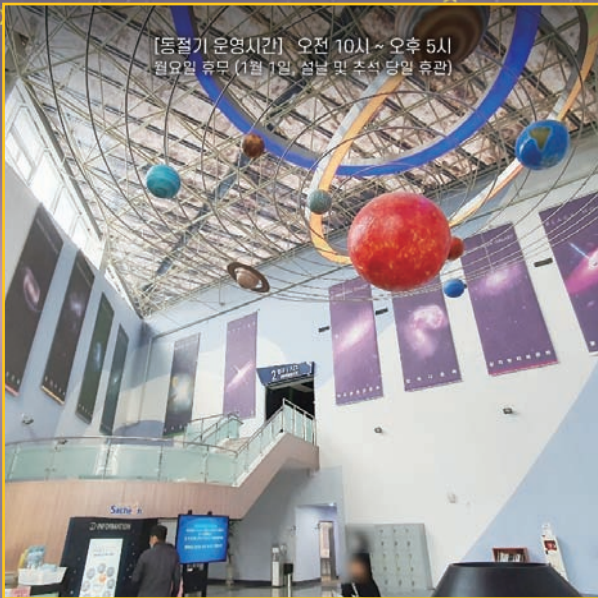


※ 사천시 SNS서포터즈가 작성한 글이며 사천시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천여행을 4000배 즐기고 싶다면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으로 오세요~

아이들에게 우주를 향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고 싶다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사천 여행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추천드립니다.





항공 에너지의 종류와 원리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VR 체험존과 입체영상관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우주를 향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꼭 방문해 보세요!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주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08





마늘 천지, 흑염소 천국

# 상아농장

한겨울 내비게이션 최단거리를 찍고 안내에 따라 가다 막다른 산길에서 힘겹게 후진까지 하면서 찾아간 사천 곤양면 가화길 109 상아농장.

농장에 들어서자마자 반겨주는 건 안후상 대표와 흑염소 떼.

2만여 평 상아농장은 마늘이 천지이고 흑염소의 천국이다.



하얀 파지 마늘과 껍질을 이불 삼아 드러눕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흑염소들이 한가로운 오후를 즐긴다. 상아농장에 사는 흑염소들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다.

상아농장의 또 다른 주인공인 신사. 흑염소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사냥개 신사는 흑염소들과 노는 건지 흑염소들을 감시하는 건지 눈을 부릅뜨고 농장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 흑염소들이 마늘을 먹고 자란다고? 사람들도 매워서 생마늘 대신 굽거나 익혀서 먹는 그 마늘을 주식으로 먹는다니 대단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흑염소가 어떻게 매운 마늘을 잘 먹을 수 있는냐는 질문에 안 대표는 처음에는 나도 몰랐다고 웃는다.

안 대표 아내의 친구가 남해에서 마늘 가공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혹시 파지 마늘을 가져다 먹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파지 마늘을 어떻게 먹일까 또 먹기나 할까 고민했다고 한다.



발효도 해보고 말려도 보고 하다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한켠에 쌓아뒀더니 흑염소들이 찾아가서 먹더라. 발효를 하고 건조를 하면 손이 많이 가는데 그냥 잘 먹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또 마늘 껍질도 방목장에 깔아두면 알아서 잘 놀고 잘 먹는다. 파지 마늘을 주 사료로 쓰다 보니 비용 절감 효과도 만점이다.

최근에 수입 조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들도 많은데 마늘을 주 사료로 먹고 방목 산에서 풀을 간식 삼아 뜯어 먹는다.

상아농장 흑염소들은 사람들에게 겁도 없다. 안 대표 부부가 먹이도 주고 부족함 없이 필요한 거 다 해주고 거기에 사랑까지 듬뿍 주니 사람들을 잘 따르나 싶다.

안 대표는 1976년 경상국립대학교 축산학과에 입학하면서 소들과 인연을 시작했다. 졸업하고 몇 년은 축산 관련 직장생활을 했지만 자신만의 축산을 위해 1990년부터 젖소, 한우를 키우다 지금은 흑염소를 키우고 있다.

흑염소는 2008년 100마리로 시작해 지금은 1000마리로 늘어나 2만여 평 방목장에 가득이다.

1000마리 흑염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산 중턱에서 방목하고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게 성장 기간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숫염소는 8~10개월째 거세를 하고

12~15개월에 도축을 하는데 상아농장은 다르다.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성장하게 기른 뒤 도축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방도 침착이 잘 되고, 육질도 좋아진다.

안 대표는 성장 기간이 충분하고 방목을 해 운동도 많이 해서 상아농장 흑염소들은 고기 질이 좋고 염소 특유의 누린내도 안 난다고 자랑한다.

상아농장은 6차산업 인증을 받고 올해 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방목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았다. 올해 1호 지정 농장이 됐다.

이렇게 키운 흑염소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 뒤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불고기, 떡갈비, 엑기스, 곰국으로 가공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도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식당도 운영하고 떡갈비 햄버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했는데 지금은 식당도 폐업하고, 체험행사도 부쩍 줄었다고 하소연을 한다.

산꼭대기에 서니 앞으로는 와룡산과 사천대교, 사천만이 내려다보이고 뒤쪽으로 서서히 내려앉는 해를 배경으로 하얀 마늘 이불을 삼아 까만 염소들이 유유자적 노닐고 있다.

새파란 방목장을 배경으로 새까만 염소 떼를 보고 싶었는데,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오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뒤로 하고 상아농장을 떠난다.



- 판매제품: 불고기, 떡갈비, 엑기스
- 농장체험: 아기염소 우유주기, 사료주기  
트랙터 체험, 햄버거 만들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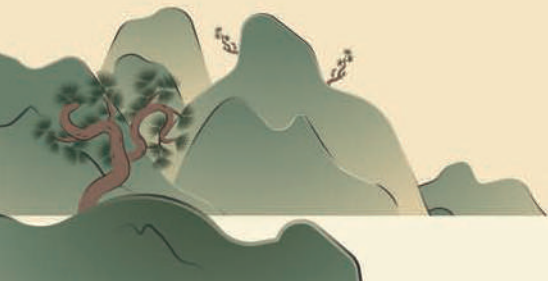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가화길 109  
☎ TEL : 010-4580-6066

# 자랑하고픈 남양동의 미룡마을

인물도 많이 나고 경제도 풍성하며 마을 앞 공단부지에 첨단산업단지까지 들어선  
이것이 용꼬리마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미룡마을은 힘이 좋은 용꼬리로  
옛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뿔뿔 뭉친 시골마을로 가옥수  
가 100가구 정도이고 옛 조선시  
대부터 효자열녀 마을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때의 돌비석  
이 남아있다.

용꼬리의 마을을 돌이켜보면,  
전 시의원 서일상 차남은 서울  
대를 나와 미국에서 박사 학위  
를 받고 현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하면서 산업훈장을 받았고,  
정재문씨의 차녀는 컴퓨터 박  
사 학위, 이준근씨의 차남은 서  
울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  
다. 우리마을에서 명문대출신이  
10여명이 넘는데 이것이 용꼬리  
마을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  
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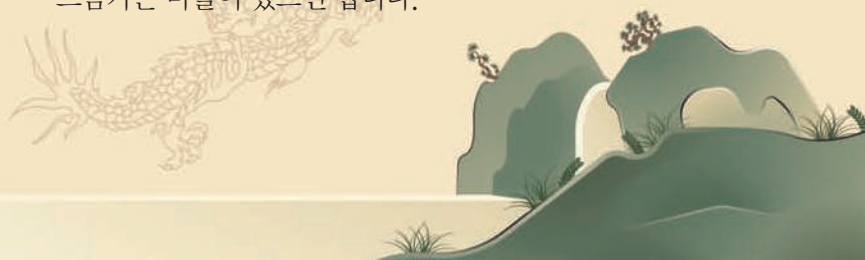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마을 뒤로는 마치 커다란 용이 누워 있는 듯한 모습의 와룡산과 넓은 들판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마을 꼭지에는 조상님께서 정성들여 가꾸어 놓으신 철룡이 있고, 그런가 하면 마을 앞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최후의 격전을 펼친 광기바다가 있다. 이것 또한 용꼬리마을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님들께서 즐겨 드시던 풋마늘은 10여 년 전 지리적표시 72호로 등록돼 삼천포농협을 통해 전국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또한 용꼬리마을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용꼬리 부분에 자리 잡은 삼천포농협 창고는 풍수설에 의하면 삼천석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 했는데, 매년 공공비축미를 삼천 가마 넘게 재고하고 있는 것 역시 용꼬리마을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농협창고 마을에는 박인근 사장이 운영하는 국제농기구대리점은 사천전역 농기구 3분의 1을 수리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용꼬리마을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용꼬리마을의 힘이 다시 한번 발휘돼, 인물도 더 많이 나고, 경제도 더 풍성하고, 주민 모두가 더 행복한 전국에서 으뜸가는 마을이 됐으면 합니다.



# 사천바다케이블카 홍보에 앞장서는 SNS 서포터즈를 만나다!



2021년 사천바다케이블카 SNS 서포터즈로 활동한 박희산 씨. 여행을 하던 중 지나가는 길에 아름다운 남해바다와 케이블카 풍경에 마음이 홀린 듯 차를 멈추게 됐다는 그는 그렇게 케이블카 서포터즈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매달 사천시를 방문하며 사천시의 예쁜 풍경과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는 박희산 씨는 2022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SNS 서포터즈에 또 지원할 정도로 사천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새로운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박희산 씨를 직접 만나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사천시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다.



서포터즈 **박희산**



#사천여행 #사천케이블카 #사천바다케이블카

##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2021년 사천바다케이블카 서포터즈이자 2022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서포터즈로 활동할 예정인 박희산입니다. 결혼 생활 13년만에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2019년 아내와 함께 세계일주를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1년 5개월만에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귀국 후, 현재는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을 하면서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알게 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내여행을 하던 중 남해를 여행하게 되었고, 지나가는 길에 남해 바다의 경치와 케이블카가 함께 떠다니는 예쁜 풍경은 차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 모





숨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중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순간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남해와 다도해의 경치를 담고 있는 사천시와 함께 한 1년은 매 순간 기억에 남고 행복했는데요. 그 중 딱 한 가지만 뽑는다면 해 질 녘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탑승하고 실안낙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움으로 손꼽히는 낙조를 하늘에 떠 있는 캐빈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서포터즈에 재지원할 정도로 사천시에 빠진 계기는 무엇인가요?**

평소 여행을 하면서 높은 산보다 넓은 바다를 좋아하는 저와 아내는 올해 1월 사천을 처음 왔을 때 바로 머물 곳을 알아봤을 정도로 첫 만남부터 폭 빠져 버렸습니다. 또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12개월 동안 매달 방문하면서 매번 설레었던 여행지는 사천이

처음이었답니다. 사랑에 빠지는데는 이유가 없듯이, 저도 그냥 사천의 모든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2021년 활동과 비교해서 앞으로 2022년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2022년에는 사천바다케이블카뿐만 아니라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사천시실내수영장, 하수처리시설 등 다양한 공단 대표 시설물들의 모습을 SNS 매체에 홍보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와 즐겁게 여행하는 모습을 위트있게 담아내며 MZ세대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찾아오는 가족 등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천시에 서 또 한번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2022년에도 '가고 싶은 곳,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사천시의 아름다운 풍광을 찾아내며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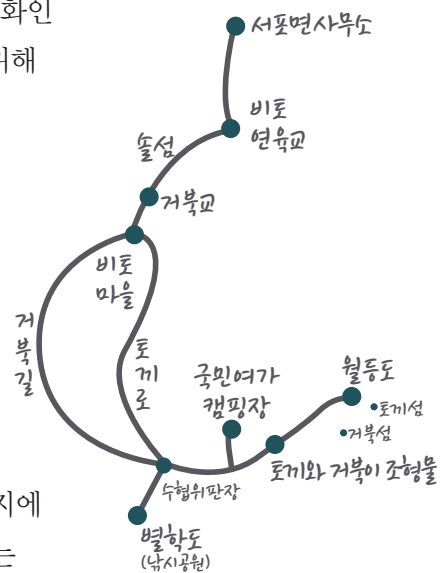




# 사천의 걷기 좋은 길 토끼와 거북길

서포면 비토섬은 토끼와 거북이의 설화인 별주부전의 무대다. 관광 상품화를 위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우리 선조가 섬 곳곳의 땅 모양을 보고 지은 이름을 별주부전의 작가가 인용했다고나 할까.

남해 바다 용왕의 심부름꾼 거북이가 토끼를 용궁으로 유인 하자 뒤늦게 병든 용왕을 위해 희생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름달의 기운을 받기 위해 나뭇가지에 걸어 둔 간을 갖고 오겠다'고 속이고는 달아났다는 이야기다. 별주부전에는 비토섬의 지명이 고스란히 등장한다.





## 장대면당에 올라서면 가슴이 트이는 길

사천시는 이런 이야기가 담긴 비토섬에 ‘토끼와 거북길’이라는 이름의 힐링 길을 만들었다. 도로변을 걷는 데는 위험이 있어 비토 연륙교 입구에서 시작해 솔섬~거북교~토끼로~비토마을~낙지포~용궁로~월등도에 들렀다가 반대로 낙지포까지 돌아와서는 왼쪽의 거북길을 통해 솔섬을 거쳐 연륙교 입구로 돌아오는 8km가량의 코스를 잡았다.

연륙교는 비토섬을 육지로 바꿔나 주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솔섬으로 불리는 송도는 전형적인 어촌이었으나 지금은 펜션과 음식점, 오토캠핑장 등이 들어선 휴양지로 탈바꿈했다. 200여 m를 더 가면 만나는 거북교는 처음에 바닷물이 관통했으나 모래나 조개, 굴 껍데기 등이 밀려와 지금의 교량으로 발전했다. 거북교를 지나 삼거리에서 왼쪽이 ‘토끼로’이고 오른쪽은 ‘거북길’이다. 토끼로 초입인 장대면당(長竹峯)을 오르면 비토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길을 따라 낙지포까지 갔다가 왼쪽으로 곧장 300~400m를 더 지나면 토끼와 거북이 조형물이 있는 월등도 초입이다.

## 저녁노을 만나면 금상첨화

월등도는 비토섬의 끝자락에 있는 또 다른 섬이다. 4가구가 살고 있는 유인도인데도 교량이 없어 하루 두 차례 썰물 때 자동차로 건널 수 있다. 물때를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월등도를 돌아 낙지포 삼거리를 조금 못 미친 곳에는 다닥다닥 굴 박신장을 만나고 그 끝이 물양장이다. 군데군데 횃집도 보이고 전망 좋은 곳에는 펜션이나 찻집도 있다. 여기서 솔섬으로 돌아가는 거북길은 호젓한 빛나무 가로수길이다. 비토섬의 매력은 해 질 녘에 거북길에서 석양을 보는 재미가 최고다. 북서쪽으로 하늘과 바다에 펼쳐지는 저녁노을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추억이다.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호젓한 걷기 코스는 느낌과 비움을 실천하는 전국 제일의 걷기 코스다. 월등도를 제외하고 두세 시간 소요.







# 어때요? 항공산업 39탄

## 관내 동향

### ● "우주산업 전담 조직 우주청, 사천이 최적지"

- 경남도의회 황재은 의원은 11월 17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은 국가 유일의 항공우주 산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산업의 70%가 집중되어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우주항공 대표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우주청 설립은 사천이 최적지다”라고 밝힘
- 이어 인천공항의 MRO 사업 침탈을 거론하면서 “수도권 집중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주청은 반드시 경남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핵심지역인 사천에 설치하여야 인근의 진주, 고성, 창원을 잇는 ‘에어-스페이스 벨트’ 구역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말함
-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11월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여 사천과 고성을 중심으로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미국의 NASA(항공우주국)와 같은 ‘우주전략본부’ 신설 공약을 밝힘

### ● KAI, 중동-아프리카-유럽 시장으로 날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UAE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 2021’에 참가해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을 펼침
- ‘두바이 에어쇼’는 올해로 17회째 열리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로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FA-50 경공격기와 수리온 기동헬기 등을 선보임
- 또한 KAI는 중동, 북미, 오세아니아 등 최근 FA-50에 주목하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록히드 마틴(LM)사와 공동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
- 정부도 이번 에어쇼에서 국산항공기 수출을 위한 지원에 나섰으며, 정부와 KAI는 ‘국산항공기 수출 Team Korea 행사’를 열고 수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짐

### ● KAI, B787 엔진 장착 구조물 신규 계약

-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11월 12일 미국 보잉사와 B787 드림라이너 항공기 구조물을 공급하기로 계약. 이번 계약은 2023년 초도 납품 후 2027년까지 5년 동안 1200억 원 규모로 진행됨
- B787은 250~350석급 장거리 쌍발 항공기로 연료 효율의 개선을 위해 기존 알루미늄 대신 탄소 섬유 복합재를 주재료로 사용한 첫 민항기
- 항공기 구조물 납품에 대한 보잉과의 직접 계약은 KAI의 개발 능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는 전망
- KAI는 여러 차례 보잉의 최우수 사업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으며, 보잉의 한 관계자는 “보잉은 지난 70여년간 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파트너인 만큼 한국의 항공우주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도내 동향

### ● 경남 항공우주산업, '그랜드 네트워킹 심포지엄 2021' 개최

- 경남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그랜드 네트워킹 심포지엄 2021'이 '코로나를 넘어 함께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11월 16~17일 제주도 호텔 난타에서 개최
-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그랜드 심포지엄 2021'은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참여 기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 16일에는 경남 항공우주기업들의 기관 소개와 항공기 제조업 투자유치 방안 등 개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17일에는 관·학·산·연 간 네트워킹 일정을 통해 관계자들의 협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
- 이번 행사에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경남TP 등 17개 기관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 항공 기업 23개 기업, 각국 대사관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함

## 국내 동향

### ● 대한항공·아시아나, 여객 부진해도 화물은 '거뜰'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4분기도 화물로 호황을 누릴 전망. 4분기는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이 있어 물류업계 최고 대목으로 손꼽힘
- 현재 양사 화물기를 100% 운용 중이나 항공 화물 물동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 화물 적재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
- 항공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운임이 상승. 작년보다 올해 항공 화물 사업이 더 큰 이익을 거둘수 있다는 생각이며,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작년보다 632% 오른 7971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40억 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

## 해외 동향

### ● 롤스로이스, 자체 개발 전기항공기 속도 세계 최고

- CNBC,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롤스로이스가 에어버스 A350 XWB 항공기에 자사 엔진을 탑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항공기' 타이틀을 확보했다고 발표함
- 최고 속도는 시속 555.9km이며 비행 중에는 시속 623km까지 도달.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국제항공연맹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
- 롤스로이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 롤스로이스와는 별개 회사로, 자동차와 항공기 엔진 부문으로 일찌감치 분리
- 롤스로이스의 한 관계자는 "이 전기항공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항공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배터리"라고 말함



길을 따라  
배는  
사천  
이야기

46번째  
이야기

배춘길

본래 진주군의 축곡면의 지역으로서 예전에는 배가 들었으므로 배춘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신기동, 양동과 가차례면의 하동과 사천군 북면의 토촌동 일부를 병합하여 배춘리라 해서 사천군 축동면에 편입되었다.

전국 지명에서 '배말'은 산촌의 뜻인 '뱃말'이 변한 지명으로 보나 배춘리는 '뱃말'과는 다르며 심수교라는 교량이 바닷물이 열물이 되면 이 교량까지 바닷물이 든다는 곳으로서 배가 드나들었던 곳이다.

사천읍 구암리와 배춘 경계 작은 산위에 북두정의 터가 있었는데 고려 때 무인들의 궁술연마장으로 9명의 무사가 배출되어 어사화를 받았으므로 '사화대'라 하였다.

(사천시 지명지 참조)

도로명은 이러한 역사성의 의미를 담아 '배춘길'로 하였다.



## 사천 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 호연정기(浩然正氣)

크고 넓으며 정대하고 강직한 기운

호연정기(浩然正氣)의 호(浩)는 “클호”, “넓을호”자로 호연(浩然)은 크고 넓다는 단어다. 호연정기(浩然正氣)란 크고 넓으며 정대하고 강직한 기운을 말한다. 흔히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른다고 말한다.

호연정기(浩然正氣), 또는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출처는 《맹자》 공손추 편에 있는 말로 맹자의 제자인 공손추가 묻고 맹자가 답한 내용 중의 한 대목이다. 공손추가 물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일러 호연지기라 합니까?”

맹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언어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 호연한 기운이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다. 곧음으로 마음을 길러 해침이 없으면 천지의 사이에 가득 차는 것이다. 그런데 그 호연한 기운이란 것이 나의 양심 속에서 의(義)와 도(道)를 합하여 나온다. 이 기운이 없으면 호연한 기운이 몸에 충만할 수 없다. …… . [敢問何謂浩然之氣，曰，難言也。其爲氣也，至大至剛，以直養而無害，則塞于天地之間。其爲氣也，配義與道，無是，餒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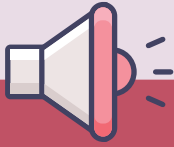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다.”라고 한 것은 천지의 정기(正氣)이고 사람은 이 정기(正氣)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아 양심이 곧지 못하면 호연한 기운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사천시 서금동 101-67번지 노산공원에는 덩실하게 솟아 있는 호연재(浩然齋)가 있다. 호연재는 바로 호연정기를 표방한 이름이다. 조선시대 영조 46년(1770)에 건립한 학당으로 팔문장이라 칭송할 정도의 지역 인물을 배출한 교육장이요 학문의 요람이었다. 그러한 정신이 이어져 1901년 호연재를 보흥의숙으로 개칭하여 신교육을 실시하였다. 1905년에는 다시 광명의숙으로 이름을 바꾸어 사립학교로서 정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곧 지금의 삼천포 초등학교의 전신이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호연재에서 망국의 우국충정을 노래하고 시집을 엮어내자 일본 경찰은 불온사상의 발상지로 지목하여 강제로 철거하는 재앙을 당하였다. 철거된 후에도 호연재는 주경야독하는 서재를 세워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였고 또한 호연정기의 정신으로 3.1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한 곳이다. 그 이후 2008년에는 그 고장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5칸의 한옥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산공원에는 그뿐 아니라 박재삼 시인의 문학관 등이 있어 인문학의 보고가 되고 있다.



이 갑 규(李甲圭)  
한국국학진흥원 교수·한학자





## 시정 알림 마당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가임기여성 엽산제 무료 지원

● **지원대상:** 임신을 준비하는 사천시 거주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가임기여성

● **지원내용:**

- 신혼·예비부부: 부부 각각 3개월분 엽산제 지원
- 가임기여성: 3개월분 엽산제 지원(출산순위 당 1회 지원)

● **신청방법:**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혼·예비부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 가임기여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3515

### 사천시 재난안내문자 수신

- **신청기간:** 2020. 9. 1. ~ 계속
- **신청대상:** 사천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사천시 홈페이지 (복지/생활 - 재난안전 - 재난안내문자 신청/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첨부]재난안내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서비스 내용:** 사천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정보, 기상정보 등

### 2022년 자동차세 연납안내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약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 신청  
www.wetax.go.kr(신청즉시 납부가능)

● **연납 신고납부 기간 및 공제세액**

구 분	신고납부 기간	관련 질환	비 고
1월 연납	1.16. ~ 1.31.	연세액×334/365×0.1	연 세액의 약 9.15% 공제
3월 연납	3.16. ~ 3.31.	연세액×275/365×0.1	연 세액의 약 7.5% 공제
6월 연납	6.16. ~ 6.30.	연세액×184/365×0.1	2기분 세액의 약 10% 공제
9월 연납	9.16. ~ 9.30.	2기분 세액×92/184×0.1	2기분 세액의 약 5% 공제

● **문의:** 사천시 세무과 재산세팀 ☎831-2871

### 가임기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사천시 거주 가임기여성(15~49) 및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내용:** 풍진항체검사비 전액 지원(1인당 29,000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문의:**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3515

### 가족행복·건강의 시작, 자기혈관숫자알기

국내사망자 5명 중 1명이 심근경색, 뇌졸중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합시다!

- 정상 혈압(120/80)
- 정상 공복혈당(100미만), 식후2시간 혈당(140미만)
- 정상 총콜레스테롤(200미만)

●문의: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  
☎055)831-3565

###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납 기: 1. 16. ~ 2. 3.
- 납세의무자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해당 면허 소지자
- 납부방법: 금융기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등
- 문 의: 사천시 세무과 세정팀(☎831-2896)

### ‘2022년 금연결심’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 대상: 금연을 결심한 자, 어느 누구내!
- 지원내용  
- 금연 독려를 위한 금연 상담 실시  
- 체내 니코틴 검사 및 금연보조제·행동용품 지원 등)
- 신청방법: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방문
- 문의: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08

### 2021년 국가암 무료검진 암! 조기검진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검진대상: 홀수년생 출생자(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기준 하위 50% 납부자)

종류	검진연령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위내시경 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 + 혈액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	2년	유방촬영검사
자궁 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	2년	자궁경부 세포검사
폐암	30갑년 이상의 연력을 가진 만 54~74세 남녀	2년	저선량 흉부 CT 검사

●국가암검진 문의: 사천시보건소 만성병관리팀  
☎055)831-3553

### 겨울방학 치아사랑 체험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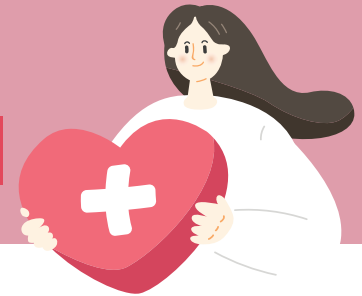
- 운영기간: 2022. 1. 10.(월) ~ 2. 25.(금)
- 운영대상: 사천시민 중 15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저소득층, 총치 다수 발생자 우선 고려)
- 운영장소: 사천시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
- 운영내용  
- 구강건강교육: 올바른 칫솔질, 불소이용 효과 등  
- 구강예방서비스 제공: 치면세균막 관리, 불소도포 등  
- 구강관리키트 배부 및 만족도 조사
- 신청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해당 시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 사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사전 예약전화 ☎055)831-353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및 내용 변경 될 수 있음





##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으로 예방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이 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건강검진에 포함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두 암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자가 검진과 예방 접종이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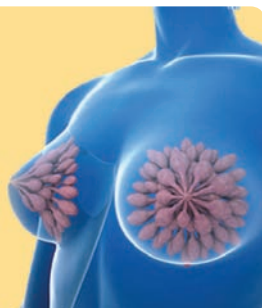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부터 1~2년마다 유방 X-선 촬영술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 X-선 촬영술은 유방을 상하, 내외로 방사선 촬영하는 것으로 한국여성의 경우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유방 X-선 촬영술로 병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을 복용하려는 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호르몬 복용 전에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여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호르몬은 유방암 자체를 발생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놓치기 쉬운 초기 유방암이 있을 경우 암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방암 검진의 핵심은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강 내 장기가 아니라 피하조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외부 촉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한 손을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가슴 부위를 위아래 또는 시계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멍울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지, 유두를 통해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겨드랑이 부위까지 자세하게 해야 한다.

### 유방암 증상

- ✔ 유방에 혹 또는 멍울
- ✔ 유두분비물 ✔ 유두함몰
- ✔ 유방피부의 함몰
- ✔ 유두습진이나 비늘
- ✔ 유방피부의 우물투돌한 변화
- ✔ 겨드랑이 멍우리 ✔ 유방통
- ✔ 선홍색, 갈색, 검은색 분비물



자가 검진은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되므로 한 달에 1~2회 정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예방에 효과적이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에 한번 씩 정기 검사 받는 것이 좋다.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가능한 암으로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주어야 한다.

성 관계 이전에 백신을 접종하면 그 효과가 높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성 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므로 성 관계 이후에도 항체를 형성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 접종은 꼭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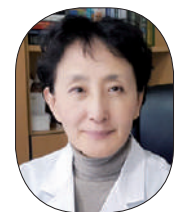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6.2%라고 한다. 그리고 점점 젊은 층으로 암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인 암! 최선의 대처 방법은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뿐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여성이 부인과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거나 남의 의에게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의 전화 및 인터넷 문의를 통하여 부인과 질한 전문의(검진 전문의)와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여성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지속적인 검진을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을 갖추어 암의 진단과 치료,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삼천포서울병원 부원장  
김현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 겨울 추억

박정도

바야흐로 겨울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추위가 덜하다지만 겨울은 동장군의 기세가 만만찮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위 앞에서 몸을 움츠리며 양지 바른 곳을 찾는다.

어린 시절 시골 고향의 추위는 혹독했었다. 그렇지만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모자와 장갑을 끼고서 활발하게 뛰노는 개구쟁이들에게 그깟 추위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추운 겨울에 가장 즐겁게 한 놀이는 스케이트 타기와 팽이 돌리기, 연 날리기였다. 동네 한 귀퉁이 산자락 밑에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물을 가둔 연못이 있었다. 축구장 크기인 그곳 연못의 물이 퐁퐁 얼면 동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직접 만든 스케이트를 탔다.

스케이트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었다. 나무로 틀을 만들고 굵은 철사를 구해 붙여 고정시키면 됐다. 스케이트에 쪼그려앉아 송곳으로 썩썩 뒤로 저으면 잘도 미끄러져 나갔다. 서로 먼저 가려고 경쟁을 펼치거나 넘어지고 하다 보면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다.

스케이트를 타다가 지겨우면 연못 얼음판 위에서 팽이를 돌렸다. 팽이에 줄을 감아 획 던지면서 줄을 풀면 팽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잘 돌았다. 던진 팽이를 손바닥으로 받아 손에서 들게도 했다. 팽이가 손바닥에서 돌면 간지러운 즐거움이 있었다. 채로 치는 팽이도 있었는데 팽이를 채로 열심히 치다 보면 추위는 금세 사라지고 이마에 구슬땀이 솟았다.

점심 때가 돼 배가 출출하면 각자 가져온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를 불에 구워 먹었다. 마른 나뭇가지를 구해 불을 피우면 잘도 탔다. 불을 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속에 넣은 고구마나 감자가 시나브로 익었다. 구운 고구마나 감자는 시골 아이들의 최고 주전부리였다.

연 날리기도 꼬마들의 훌륭한 놀이였다. 방패연, 가오리연 등을 창호지와 대를 이용해 직접 만들어 하늘에 띄우면 둥실둥실 잘도 날았다. 열레에 실을 감아 연과 연결해서 하늘 높이 띄우면 우리 코흘리개들의 꿈도 덩달아 크는 기분이었다.

그런 시절이 엇그제 같은 데 벌써 50대 후반 중년의 나이이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발달해 전래놀이는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춥고 배고픈 초동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이 그립다. 언젠가 여건을 만들어 초동시절 겨울에 즐기던 여러 전래 놀이를 해보며 소소한 행복에 잠겨보고 싶다.







사천의 미래

# 소중한 아기탄생을 축하합니다

응원

정유준 (21.11.16.)

건강하게 태어나주셔서  
고마워♡

아빠 정성희♡엄마 이수진

발용동

천이준 (21.10.25.)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준아 사랑해♡  
이준아 건강하게, 바른 사람으로  
잘 자라다오♡

아빠 천동권♡엄마 김지연

발용동

지현도 (21.11.12.)

세상에 태어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현도야 사랑한다♡

아빠 지인호♡엄마 최민경

발용동

박태인 (21.11.04.)

태인아,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나주셔서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도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라♡

아빠 박문주♡엄마 임동해

발용동

박정안 (21.11.12.)

정안아,  
우리집 둘째로 와서 환영해!♡

아빠 박준태♡엄마 한지원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글을 보내주세요.  
사천소식지에 게재 후, 개별 송부해드립니다.

- 대 상 : 사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내 용 : 아기에게 전하는 축하의 글
- 신청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아기 출생신고 시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접수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인구정책팀(☎831-2195)